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

지도교수 류재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부 공 민

2007년 8월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

지도교수 류 재 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제출자 부 공 민

제주대

부공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6월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

부 공 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류재청

본 연구는 오름 트레킹이라는 특정상황에서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그리고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오름 트레킹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유목적 표집방식을 이용하여 표집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413명이었으며, 이후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328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는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된 통계기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는 Duncan검증,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 4개 요인과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만족의 3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2. 참여동기와 만족도는 참여기간을 제외한 성별, 연령, 결혼유무, 참여빈도, 참여형태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동기는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만족도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동기는 신체적, 심리적 만족에, 교육적, 심리적 동기는 모든 만족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동기는 교육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문제	2
4.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4
1. 오름 트레킹	4
2. 참여동기	8
3. 만족도	17
4. 선행연구 고찰	20
III. 연구방법	24
1. 조사대상	24
2. 측정도구	25
3. 연구절차	26
4. 자료처리	27
IV. 연구결과	28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결과	28
2.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31
3.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분석	37
V. 논 의	41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41
2.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43
3.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분석	45
VI.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48
참고문헌	49
부록	55

▣ 표 목차

표Ⅱ-1. 트레킹의 종류(김정아, 1996) -----	7
표Ⅱ-2. 선행연구의 참여동기 요인들 -----	17
표Ⅱ-3. 여가만족 척도(LSS) -----	19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	24
표Ⅲ-2.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	25
표Ⅳ-1. 참여동기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	29
표Ⅳ-2. 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	30
표Ⅳ-3.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1
표Ⅳ-4.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1
표Ⅳ-5. 결혼유무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2
표Ⅳ-6.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2
표Ⅳ-7.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3
표Ⅳ-8. 참여형태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3
표Ⅳ-9.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4
표Ⅳ-10.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4
표Ⅳ-11. 결혼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5
표Ⅳ-12. 참여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5
표Ⅳ-13. 참여빈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6
표Ⅳ-14.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36
표Ⅳ-15.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상관분석 결과 -----	37
표Ⅳ-16. 참여동기가 신체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8
표Ⅳ-17. 참여동기가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8
표Ⅳ-18. 참여동기가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9
표Ⅳ-19. 참여동기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0

▣ 그림 목차

그림Ⅱ-1. 동기의 개념(이강헌 등, 2005) -----	8
그림Ⅱ-2. Maslow의 욕구위계 5단계 -----	10
그림Ⅱ-3. 욕구이론의 단순모형 -----	10
그림Ⅱ-4. 귀인요소와 차원(Weiner, 1972) -----	12
그림Ⅱ-5. 조절양식, 인과소재, 관련 과정과 동기 유형을 보여주는 자기결정성 연속체 (Ryan & Deci, 2000) -----	13
그림Ⅱ-6. 기대와 경험에 의한 주관적 만족도 -----	17
그림Ⅲ-1. 본 연구의 절차 -----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의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여가시간의 활용은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임재구, 임태성, 2000). 이와 같이 여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창조, 자아실현 등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양명환, 2000). 또한, 지속적인 여가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박경호, 2002) 있어 매우 긍정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가활동 중 하나인 트레킹에 대해서 살펴보면, 트레킹(trekking)¹⁾이란 가벼운 배낭을 지고 산이나 들판을 걸으며 사색을 즐기고 대자연을 감상하는 레저스포츠다(김효윤, 1997). 최근 트레킹이 대중화 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테마 트레킹으로 온천 트레킹, 철새 트레킹, 역사적 유적지를 찾는 트레킹 등 그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야트막한 산을 자칭하는 오름을 탐방하는 트레킹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데, 이 오름 트레킹은 여가활동의 하나로써 제주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오름을 찾고 주위 문화와 교감을 갖는 신체활동(부공민, 양명환, 2005)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 해발 300m~500m 정도의 오름을 탐사하는 것을 말한다(김병욱, 2004).

오름이란 소형화산체로서 제주도 전역에 368개²⁾가 각각이 서로 다른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져 경이로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제주도, 1997). 이와 관련하여 김종철은 자신의 저서 “오름 나그네”에서 오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오름 가운데서도 따라비³⁾는 이름만큼이나 생김새도 색다르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오밀 조밀 하게 어우러진 데다 그제 어느 하나 사이가 떨어짐이 없이 서로 매끄러운 등성으로 연결되어 한 산체를 형성하고 있다. 위에 올라서면 어느 오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하고 희한한 형태를 눈앞에 보게 된다. 움푹움푹 3개의 굽부리⁴⁾가 사이좋게 이웃해 있는 것이다. 깊이에 차이는 없으나 서로 둥근 모양을 하며 오순도순 한 것이 세 쌍둥이 굽부리라고 할까?(김종철, 1995)

또 제주의 오름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⁵⁾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제3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자연유산⁶⁾에 등재되었다(오재용, 2007). 이로서 오름의 경관과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오름 트레킹, 오름 답사 붐이 일면서 오름이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오름만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리는 등 오름의 ‘미학적 가치’도 깨어나고 있다. 또한, 오름을 탐방하는 동호회가

2005년 9월 현재 총 115개로 5,500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되지 않은 가족단위와 직장, 모임, 친구 등 다양한 소그룹단위의 트레킹 인구는 더욱 많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트레킹 인구의 증가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가활동으로 웰빙의식의 확산과 함께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부공민, 양명환, 2005). 그러나 이처럼 경관가치가 뛰어난 화산지형인 오름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에 대한 연구들이 하드웨어적인 지질학적 연구(김태호, 2001, 2003; 권병두, 오석훈, 이희순, 정현기, 1993; 윤정수, 1995; 현원학, 2003)에 주로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오름관광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고남수, 2002; 고은경, 2003; 윤용택, 2004; 신영대, 2004; 고소영, 2006)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름을 탐방하는 심리적인 욕구와 트레킹이 유발하는 심리적 효과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 및 제약에 대한 질적인 일련의 연구(부공민, 양명환, 2005, 2006)는 운동심리학적 관점에서 오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초석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 정량적인 분석기법과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는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하여 오름 트레킹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들은 어떠한 요인구조로 나타나는가?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1) 오름 트레킹

본 연구에서 오름 트레킹은 단지 산을 오르는 등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며 비교적 높지 않은 곳을 간편한 복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주에 산재하여 있는 오름을 찾고 주위 문화와 교감을 갖는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2) 참여동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여하는 동기가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분류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신체적 동기의 4개 차원에서 얻어진 측정값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3) 만족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활동참여가 그들로 하여금 참여동기에 대하여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가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휴식적, 교육적, 신체적 만족의 4개 차원에서 얻어진 측정값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오름 트레킹

오름 트레킹은 자유의 시간에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제주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오름을 찾고 주위 문화와 교감을 갖는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다(부공민 등, 2005). 이는 특별한 장비 없이 해발 300m~500m 정도의 오름을 탐사하는 것(김병욱, 2004)으로 단지 산을 오르는 등산과는 조금 다르며 비교적 높지 않은 곳을 간편한 복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최근 들어 오름 트레킹, 오름 답사 붐이 일면서 오름이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오름만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리는 등 오름의 '미학적 가치'도 깨어나고 있다. 2005년 제주도의 집계에 따르면, 오름 트레킹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가 2005년 9월 현재 총 115개로 5,500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가 되지 않은 가족단위와 소그룹단위의 트레킹 인구는 더 많다고 사료되며 이는 최근 웰빙의식이 확산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부공민 등, 2005).

1) 오름

(1) 오름의 정의

오름은 측화산(측)을 의미하는 제주방언으로 화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를 이르는 말이다. 제주도(1997)에서 발간된 제주의 오름에서는 오름을 '제주화산도상에 산재해 있는 기생화산구(寄生火山丘)라 정의하였고, 제주 발전연구원의 보고서(2000)에서는 오름을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제외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로 화구를 갖고 있으면서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독립 화산체 또는 기생화산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원학(2003)은 화산체가 아닌 오름도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로 오름은 소규모의 산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오름의 어원

오름'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제주지역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옛말로 岳(악)이나 峰(봉)을 의미하는 야트막한 산을 뜻한다(오창명, 1998). 오름은 몽고어로 높은 장소나 山頂(산정)을 의미하는 '오로'(oro) 또는 '오론'(oron) 등에서 파생되어 오론(oron)→오름(orum)→오름(oreum)으로 변화된 것(고남수, 2002 재인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조선시대 김상헌의 '남사록'과 제주풍속을 기록한 '탐라지'에서 '兀音'(울음)이라 하여 특이한 제주어의 예로 들고 있다. '岳音, 岳老音, 兀音'

등은 제주어 '오름'을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어 표기한 것(오창명, 1998)으로 오름의 어원은 '오르다'의 명사형 표현으로 추정되며 쉽게 오를 수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나 동산과 같은 느낌으로(고소영, 2006) 각각의 서로 다른 오름 이름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어의 옛 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름 이외에도 현지인(도민)들은 岳(악), 峰(봉), 山(산), 장오리, 영아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해안지대에 있는 오름에 대해서는 오름보다는 峰(봉)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조선시대에 봉수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25개의 오름에 봉수대가 설치되었었고 일부 오름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山을 뜻하는 고유어 '되'의 흔적도 여럿 확인된다.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인 '물미' 또는 '물메' 라는 것과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의 경계에 있는 犀牛峰(서우봉)의 옛 이름인 '서모' 또는 '서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세어 '되'의 제주도방언으로 '미, 메, 모' 등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오창명, 1998). 이처럼 예전부터 제주사람들은 오름에서 나고 오름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을 만큼 오름은 제주의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으며 제주도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 오름의 특징

오름이 형성된 시기는 약 3~5만 년 전으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오름이 이시기에 화산활동을 일으키며 오름으로 탄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문원, 1994)⁸⁾. 이들은 지금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제주의 풍광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1847.2km²의 면적에서 368개의 오름이 있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 당 가장 많은 오름이 있다. 또한, 밀도는 약 5.5km² 당 한개 꼴(제주도, 1997)로 동쪽에서 서쪽의 횡축을 따라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구좌읍 송당 일대의 지역에서 그 밀도가 가장 높다. 제주도의 화산은 생성원인에 의해 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원정구, 마르로 분류되며 우리가 오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주로 스킨리아로 제주에서는 '송이' 라고 부른다(김태호, 2001). 오름의 형태는 화구가 완전한 원형을 이루는 O형과 한쪽 부분이 개구된 U형(말굽형)으로 구분(원종관, 1976)되고 화구가 없이 봉긋한 형태를 원추형이라 하며, 말굽형과 원추형이 합쳐진 형태를 복합형이라 한다(제주도, 1997). 이외에도 봉수대가 설치된 오름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때 방어시설의 하나로 축조된 것이다. 또한 오름에서는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던 제터와 무속신앙의 본거지인 당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신영대, 2004).

(4) 오름의 가치

한라산과 오름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화산경관은 한반도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지형경관으로서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이라 할 수 있다(김태호, 2003). 또한, 오름은 제주인의 생활 터전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해왔으며 역사의 산 교육장이면서 자연학습장이다. 최근 들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름은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연출하면서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어 학술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남수, 2002). 그러나 탐방객에 의한 답압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산로 개설과 오름의 과도한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태호, 2003; 부공민 등, 2005). 아래는 오름의 활용가치에 대한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방안 용역보고서(제주발전연구원, 2000)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① 인문적 가치

오름에는 제주인의 정신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유적이 많으며 그 역사 유적들이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즉 원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제주의 정체성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오름의 인문 자원은 제주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② 식물·생태적 가치

오름은 초지, 자연림, 인공림, 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포하는 표고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생물적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대단히 높으며, 오름에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 천이 과정 등 식생에 대한 자연관찰 및 학습 등에 의한 2차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③ 지형·지질적 가치

제주도는 신생대 제 4기에 걸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도로 비교적 형성시기가 최근의 것으로 화산의 원지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화산활동과 관련된 화산지형의 형성과정과 개석에 의한 변화 등을 연구하기 좋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분석구, 용암원정구, 응회환·응회구, 마르 등의 지형적 구조를 하고 있어 분출시기, 분화특성, 화산활동의 양상, 마그마가 생성되었던 심부 환경의 정보 등 당시의 화산활동에 대한 정보와 화산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오름을 비롯한 제주도 전체는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지구과학적 학습장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④ 경관적 가치

경관은 눈에 보여 지는 자연 및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하여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1차적으로 '보여 지는 경관'을 뜻하지만 2차적으로는 보여 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보여 진다'는 의미는 반드시 시각(視覺)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어휘

인 '지각 된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꽃향기, 바람소리 등과 같이 인체의 오관을 통하여 '지각되는 풍경'으로 경관적 가치는 시각을 비롯한 5감에 의해 느끼는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제주 오름이 지니고 있는 경관적 가치는 크게 생태학적, 형식미학적, 정신물리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정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오름은 제주인의 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주 오름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⑤ 생태관광적 가치

과거처럼 단순히 구경하고 먹고 마시는 관광 행태로부터 자연 속에서 활동하고 휴식하는 자연탐방형 관광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의 오름은 일상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오름 탐방에서 얻을 수 있는 휴식과 체험 효과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연 및 환경 교육의 장, 심성을 순화시키는 장소로서 자연성이 우수하고 학습 효과가 높다.

2) 트레킹

트레킹(trekking)이란 가벼운 배낭을 지고 산이나 들판을 걸으며 사색을 즐기고 대자연을 감상하는 레저스포츠다. 트레킹은 원래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수림지를 찾아 집단 이주하던 형태에서 비롯된 말로 지금은 “고행하면서 하는 여행”, “집단여행이나 탐험”, “도보여행” 이란 뜻으로 사용되며, 산야국가인 네팔에서는 해발 5,000m이하의 산야 도보여행을 트레킹이라 하고 5,000m이상의 산야여행을 등반 이라고 하였다(김효운, 1997).

표 II-1. 트레킹의 종류(김정아, 1996)

트레킹의 종류	
레저트레킹	트레킹에 충실하면서도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를 프로그램에 포함.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 래프팅, 코끼리 사파리.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 스킨스쿠버. 대만 옥산 - 래프팅. 킬리만자로 - 사파리여행. 일본 다테야마 - 스키.
테마트레킹	주제를 먼저 설정한 다음 주제에 따라 트레킹코스를 개발. 계곡, 섬, 동굴 등을 찾아 떠나는 코스. 밤 줍기, 잣따기, 도토리 줍기 등 전원생활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코스. MTB(Mountain Bike)트레킹.
탐방로(Trail)	혼탁한 도시를 피하여 산수가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곳을 찾아 누군가가 지나감직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솔길이 트레일. 우리나라 - 자연탐방로, 유보도, 산책로, 특별한 성격을 지닌 인위적인 길.

한국체육진흥회에서는 트레킹을 산야나 평지를 심신수련 및 정신수련을 위한 도보여행으로 정의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전문 등산보다는 좀 가벼운 산행과 모든 종류의 야외활동을 포함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답사 체험하며 때로는 모험적인 활동까지도 수용하는 몸을 움직여 직

접 체험하는 여행으로 의미가 확대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직 트레킹의 정의가 유동적이라 가벼운 도보여행부터 고산지대의 등산까지 광범위하게 트레킹이라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그 뜻이 제일 혼용되는 등산과 비교할 때 등산이 산 정상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을 담는 것이 트레킹이라 할 수 있다(김정아, 199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산은 전문 장비를 갖추고 해발 500m 이상의 산야를 걷는 것으로 정상을 정복하는 목적이 있으며 지구력과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반면, 트레킹은 전문장비가 필요 없고, 가벼운 복장으로 해발 500m 이하의 산야나 평지 또는 해변을 남녀노소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정인경, 1999).

2. 참여동기

1) 동기의 개념

동기란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실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스위치 기능을 하는 것(이강현, 구우영, 정구인, 정용각, 2005)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거나 실제로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구란 개인을 움직이는 원천이며 이러한 욕구를 동기(motive)라고 한다(최철형, 2006). 즉 행동을 취하는 준비태세이고 이러한 상태로 하여금 목표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강현 등, 2005). 이러한 동기(motive)의 어원은 라틴어 movere 로부터 파생되었으며, 그 의미는 움직이다(to move)는 뜻을 지니고 있다(이광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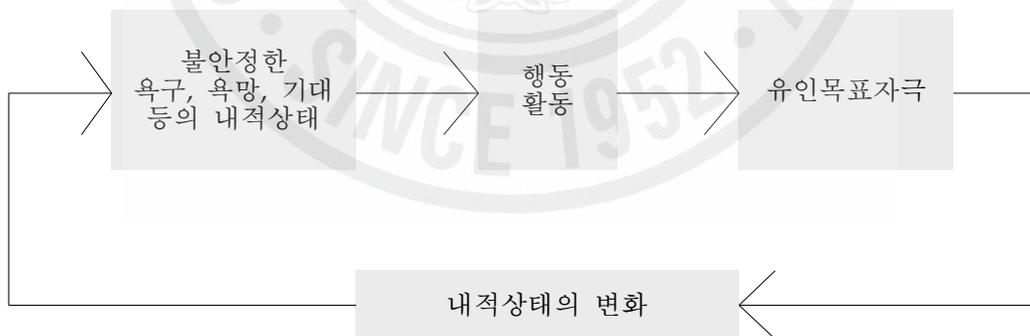


그림 II-1. 동기의 개념(이강현 등, 2005)

Sage에 따르면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정의되며, 노력의 방향(direction of effort)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상황이나 행동을 추구하고 거기서로 다가가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또한, Ross(1987)는 ‘개인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내적 심리상태’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동기는,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여 행위를 조정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목표도달을 위해 투입시키는 것이며, 행동을 활성화시키거나 작동시키는 내적인 상태를 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기유발(motivation)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동기들로 이뤄지는 다차원적인 과정(multidimensional process)이다. 즉, 한순간에 어떠한 스포츠나 신체활동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만족도가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만족도는 과거의 모든 경험과 특정한 시점에서 가장 우세했던 욕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이강현 등, 2005).

2) 동기의 특성

동기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는 행동을 일으키는 시발기능, 맹목적인 행동이 아닌 특수한 반응을 선택하는 선택기능, 행동을 목표에 방향 짓는 지향기능,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행동의 재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강화기능을 들 수 있다(류정무, 이강현, 1990). 내적인 힘을 제공해 주고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며 기대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동기의 기능은 욕구나 충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충족시켜 유기체의 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욕구에서 동기가 형성되면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의 감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정서(emotion)라고 하는 흥분을 일으킨다. 그리고 동기유발이 된 사람은 내적인 에너지 변화에서 생기는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동기 목표의 선택과 결과에 작용한다. 또한 동기가 지니는 욕구(drives) 또는 각성(arousal) 촉발을 시키는 인간 행동의 활성화(energize) 측면과 행동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여 이루어지도록 인간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목표를 지향토록 방향을 설정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욕구의 강도와 에너지의 방향을 지닌 인간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는 측면이 있다(박태준, 2004 재인용).

3) 동기 이론

(1)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설

Maslow는 인간행동의 기초적 욕구를 5단계로 도식화 하였다. Maslow는 단지 불만족한 욕구들이 행동의 근거이고 만족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강조한 후 하등의 순서 즉, 매우 우세한 욕구들이 만족될 때 욕구 계층의 척도를 위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최철형, 2006 재인용). 이러한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설은 동기에 대한 이론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여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기 이론 중 가장 대중적이다. 그는 인간의 5가지 기본욕구를 생리적 욕구, 애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그림 II-2>와 같다.

Brockett(1976)는 Maslow의 이론에 덧붙여서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욕구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즉 기본 욕구들은 상호의존적이며, 하나의 만족이 또 다른 욕구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행복의 추구는 모순이다. 더 왕성하게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에 도달하는 거리는 멀어진다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은 새로

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과 효능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박수정, 1996).



그림 II-2. Maslow의 욕구위계 5단계

(2) 욕구이론

욕구는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 지속력을 결정지어 주는 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내재적인 힘으로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욕구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Hull과 Spence이다(Carron, 1980). Weiner(1972)의 욕구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습관의 강도, 욕구, 유인동기이다. 즉, 발현 잠재력을 결정지어 주는 요소는 욕구와 동기이며, 발현 잠재력이 일정 수준을 초월하여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동의 종류와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것은 습관의 강도라고 하였다. 그의 욕구이론 단순모형을 보면 아래의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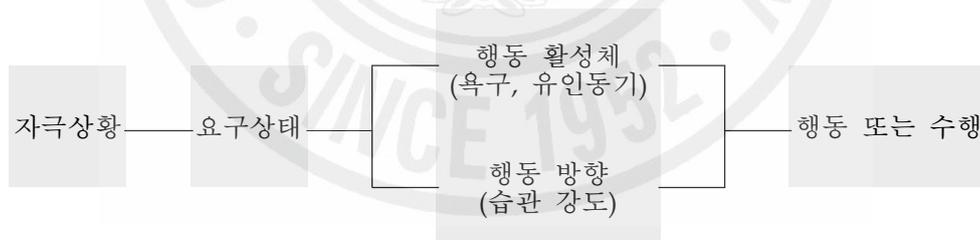


그림 II-3. 욕구이론의 단순모형

따라서 욕구이론에 근거하면 잘 학습된 과제 즉, 습관의 강도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 또는 쉬운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욕구 조건의 발생으로부터 생성된 욕구의 수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또는 행동) 결과는 향상되며, 이와 반대로 잘 학습되지 않은 과제 즉, 습관의 강도가 약하게 형성되어 어려운 과제의 경우는 욕구의 상승이 오히려 과제 수행의 결과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습관의 강도가 약하면 반응의 학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욕구가 상승하여 행동을 위한 힘은 활성화되더라도 결국 오습(汚習)반응을 촉발하게 되기 때문이다(최철형, 2006).

(3)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는 일반적으로 수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자 할 때 개인의 포부 수준, 노력 및 지구력 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정의되며, 성취동기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이론에서 인간이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체로 성취욕구의 강도에 의해서 설명되고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가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취동기와 행동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적 모형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대표적인 이론은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를 강조한 McClelland와 Atkinson의 성취동기이론이다(Carron, 1980). 그들에 의하면 모든 동기는 학습된 것이며 장차 얻고자 하는 목표반응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과거의 쾌락이나 고통과 연계되어 있는 일정한 단서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성취동기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이강현 등, 2005).

McClelland(1962)는 성취상황에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독특한 행동특성을 나타낸다고 전제하고,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외적 보상보다는 성취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성향적(task oriented)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중간 수준의 성공 확률을 지니는 모험적인 과제의 해결에 흥미를 느껴 과제 난이도가 중간 수준인 과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유능성을 지각하여 자신의 활동성취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으며 행동의 결과에 대해 더욱 책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공욕구(the need to achieve)가 크며, 반대로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승리를 목적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겨야만 자신이 잘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람은 관심을 남과의 비교에 둔다. 이렇게 자기 성향적(ego goal orientation)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실패회피동인(motive to avoid failure)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귀인(attribution)은 수행의 원인에 대한 지각 또는 추론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추론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내적 상태와 행동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동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인의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 노력, 과제의 난이도, 분위기가 서로 관계되어 이루어진다.

귀인이론은 Fritz Heider로부터 시작되어 Atkinson의 성취동기이론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가지고 Bernard Weiner가 발전시켰다(김재건, 1997). 대부분의 인간은 행동 원인의 지각에 대한 논리적 규칙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감정과 미래 행동을 예상하는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서성미, 2002). 즉,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대와 감정에 영향을 주어 앞으로의 행동 동기를

설정하고 행동 반응을 예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성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욕구와 소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인간은 성공과 같은 정적인 효과는 내적요인에 귀인 시키는 반면 실패와 같은 부적인 효과는 외적요인에 귀인 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귀인과정은 성취욕구, 습관, 적정수준의 각성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나 능력, 과제의 난이도, 운과 같은 단순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상식심리학 또는 순수심리학이라고 불린다.

Weiner(1979)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들을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보고 이 4개의요인들을 인과성소재(Locus of causality)차원과 안정성(stability) 차원 그리고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인과성소재는 내적(internal)인 것과 외적(external)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번째, 안정성은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통제가능성은 통제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다. 능력은 내재적이며 안정성되고 통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공의 원인을 능력으로 지각한다면 미래에도 성공이 기대되지만 실패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여 미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력은 내재적이긴 하지만 불안정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성공에 대한 원인이 과제 난이도나 운이라면 불안정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므로 미래의 성공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으로 지각된다면 미래 수행에 반드시 실패가 예측되지 않는다. 이러한 Weiner에 의해 제안된 귀인이론은 기대와 감정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 성취동기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성취결과에 대한 귀인 결과는 기대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성취상황에서의 과제선택, 성취활동의 강도와 지구력 등의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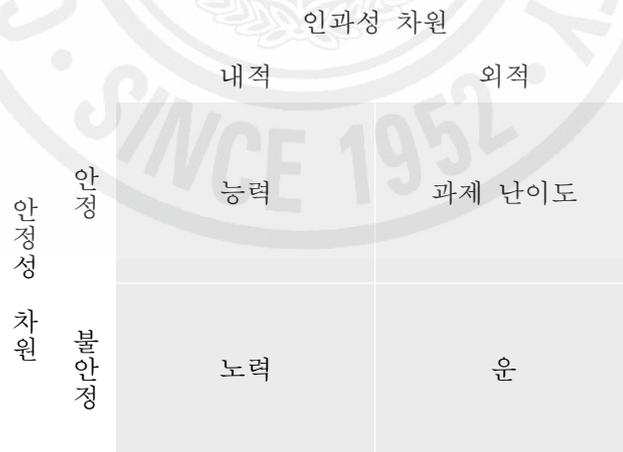


그림 II-4. 귀인요소와 차원(Weiner, 1972)

이 모델에 따르면 성취와 관련된 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일차적으로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 등 네 가지 인과요인들이 귀인 된다. 이러한 인과요인들은 크게 두 차원으로 묶여지는데, 그 하나는 내외 인과성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안정성 차원이다. 이러한 인과 요인들 중에서 능력과 노력은 비교적 개인적인 특성인 반면 운과 과제의 난이도는 환경적 혹은 외적 특

성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불변적인 반면 노력과 운의 정도는 매우 불 안정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5) 자기결정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내부에서 발생한다는 내적 동기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외재적 동기의 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보거나 반대로 외재적인 동기가 내재적인 동기에 해를 끼친다고 보는 두 가지 견해로 대립되어 왔다.

내재적 동기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Deci와 Ryan(1985)은 내적, 외적 행동의 근원들이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autonomy) 또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두 가지 동기유형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기존의 기본적인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기 결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왔다(Deci & Ryan, 1985, 2000).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즉,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재적 동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그들의 기본적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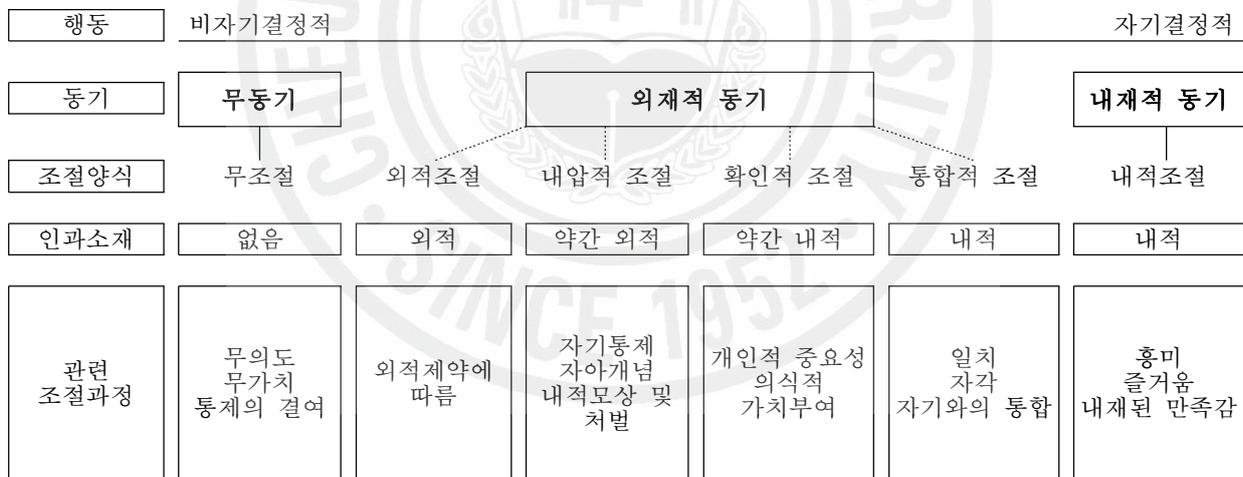


그림 II-5. 조절양식, 인과소재, 관련 과정과 동기 유형을 보여주는 자기결정성 연속체(Deci & Ryan, 2000)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 SDT)은 개인의 행동조절(behavioral regulation)유형을 자율성 혹은 자기 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다. 내재적 동기는 자율적 행위들의 원형으로 개인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면 그는 말 그대로 자기 결정적이다. 반면 외재적 동기의 유형을 외적 동기가 내재화된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다. 외적동기가 보다 더 충분히 내재화되고 자신과 통합될수록 자율적 행동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Deci & Ryan은 자기결정성 연속체를 따라서 상이한 지점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동기들이 존재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연속체는 자기결정 수준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주하고 있는데, 내재적 동기에서 외재적 동기로 이동하고 결국에는 특별한 행동에 참여할 의지가 결여 되어 있는 무동기로 이동한다(김소연, 2006 재인용). 무동기는 자기결정성 또는 행동조절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연속선상의 가장 왼편에 위치한다. 외적조절, 내압적 조절, 확인적 조절, 통합적 조절 등의 네 가지이다. 내재적 동기는 완벽한 자율성을 가진 동기로서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다.

자기결정성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동기는 크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내적으로 동기화 되었다고 한다. Deci(1975)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유능감과 자결성을 느끼려는 내적 욕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내적동기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즐거움이나 유능감을 경험하고 외적인 가압 없이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에 효과를 미치려는 인간 본래의 욕구와 자기 강화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에서의 내재적 동기에 대하여 Weiner(1986)는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도 동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내재적 동기라고 하면서 순수한 즐거움과 흥미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Harter(1981)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든지, 도전, 호기심 또는 숙련이나 숙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자는 그들의 스포츠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흥미와 만족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 자체의 행동을 함으로써 유능감이 향상되는 기쁨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내적으로 동기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광수, 2003).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내적으로 동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재적 동기는 단일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Deci와 Ryan(1985)은 내재적 동기로 나타나는 행동은 흥미와 즐거움, 유능감, 노력, 압력과 긴장, 선택감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Vallerand, Pelletier, Blais & Vallieres(1992)는 내재적 동기를 분류함에 있어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지식획득의 동기, 성취의 동기, 자극체험의 동기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첫째, 지식획득의 동기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학습하며 이해하고, 탐색하면서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취의 동기는 어떤 것에 도전하거나 무엇인가를 시도하였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극체험의 동기는 참여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쾌감과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자극을 경험하기 위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는 운동참여의 원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가 아닌 개인 및 사회적 성취나 주위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활동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의 수단으로서 참여하는 다양한 인간행동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외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외재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현상에서 자연적 또는 내재적 동기가 아닌 것에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와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김소연, 2006).

Deci와 Ryan(2000)은 개인이 지각하는 상대적인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외재적 동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조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재적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외재적 동기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Deci & Ryan(1985)은 이러한 외재적 동기를 외적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압적 조절(introjection regulation), 확인적 조절(identification regulation)로 분류하였다.

첫째, 외적조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외적동기의 개념에 가깝다. 즉, 어떤 행동이 외적 보상이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보상이나 칭찬을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다.

둘째, 내압적 조절은 외적인 동기요인이 내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내면화시킴으로서 행동을 개시하는데 외적 요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셋째, 확인적 조절은 특정행동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할 경우를 의미하며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행동을 확인규제의 외적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조절 또한 선택에 의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개인의 동기는 가치, 욕구와 같은 자아의 다른 측면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활동에 참여하는 결정은 활동이 자아의 다른 측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각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외적동기가 충분히 내면화되고 자신과 통합될수록 자율적 행위에 대한 토대가 더 커진다고 예측하고 있다(양명환, 2004).

③ 무동기(Amotivation)

무동기는 학습에서의 무기력(무력감)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수행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 현상이 인지되거나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나타난다. Deci & Ryan(1985)은 무동기를 “개인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동기의 상실”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무동기라는 것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이다.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무동기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것도 없으며 어떤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Vallerand, Pelletier, Blais, Senecal, Vallieres(1992)는 스포츠 참여에서 무동기를 가진 참여자는

그들의 행동과 행동결과 사이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무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능력부족'으로 인한 무동기이다. 이것은 특정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전략미흡'으로 인한 무동기이다. 어떤 전략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믿을 때 무동기 상태에 이른다.

셋째, '노력회피'에 의해 초래된다. 즉 특정행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동기이다.

넷째, '무기력 신념'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동기의 분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활동에 참가하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란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이끌어 내는 요구나 욕구라고 할 수 있다(안근석·이용인, 1996).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Pelletier, Fortier, Vallerand, Tuson, Briere, Blaes(1995)에 의하여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무동기를 포함한 3분류학(three taxonomy)에 의한 동기를 분류하는 SMS(Sport Motivation Scale)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양명환(1994)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건강/체력, 정화, 모험추구, 신체조성, 사회적 동기, 희열추구의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남, 여 학생 모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참여동기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아울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체력, 사회적 동기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신체조형 동기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철화(1995)는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 하위요인을 건강지향형, 자기개발형, 사교지향형, 가정지향형, 취미, 오락지향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기혼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의 직접적인 효과로 가정지향형을 1순위로 보고하였으며, 민병기(1997)는 성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를 건강, 사교, 자기개발, 가정, 취미지향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정용각(1998)은 Pelletier 등(1995)이 제시한 스포츠 참여 동기척도(SMS)와 Leisure Intrinsic Motivation(LIM)을 참고로 수정 제작한 동기 질문지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운동종목에 생활체육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참여동기를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로 3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내적동기를 즐거움, 기술발달, 성취감/흥분감의 3요인으로 외적동기는 컨디셔닝, 건강/체력, 사교, 외적과시의 4요인으로 무동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김나미(1997)는 참여동기를 지적, 사회적, 인지적 효능, 휴식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참여동기 요인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문창일, 김병준, 최만식, 문익수(2005)는 Pelletier 등(1995)의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몇 차례에 걸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무동기, 사회적 인정, 사회적 만족, 개인적 인정, 가치부여, 내적만족의 6요인이 형성되었으며 Pelletier 등(1995)이 제시한 7요인 구조와는 달리 문

화적인 차이로 인해 내적동기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참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기요인을 종합하면 <표 II-2>과 같다.

표 II-2. 선행연구의 참여동기 요인들

Clough 등(1990)	양명환(1994)	이철화(1995)	김나미(1997)	민병기(1997)	정용각(1998)
심리적 안녕	건강/체력	건강지향형	지적요인	건강	내적동기
사회적 동기	정화	자기개발형	사회적요인	사교	즐거움, 기술발달
도전	모험추구	사교지향형	인지적효능요인	자기개발	성취감/ 흥분감
지위	신체조형	가정지향형	휴식적요인	가정	외적동기
건강/체력	사회적 동기	취미, 오락지향형		취미지향성	컨디션, 사교
탐닉	희열추구				건강/체력
					외적과시
					무동기
					무관심, 냉담 등

3. 만족도

1) 만족도의 개념

여가시간에서 추구된 경험으로부터 나타난 만족도는 여가시간을 통해 경험한 그 자체의 실질적 수준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추구된 경험수준과 현재의 경험수준과의 불일치에 관련되는 것이다(안선희, 2005).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개념이며 인간행동의 일부, 즉 여가경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만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Jackson & Button, 1989). 따라서 여가만족이란, 활동에 참여 혹은 선택한 결과로서 얻어지거나 형성되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긍정적인 인지 정도이며, 개인의 일반적인 경험과 상황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Ragheb & Beard(1983)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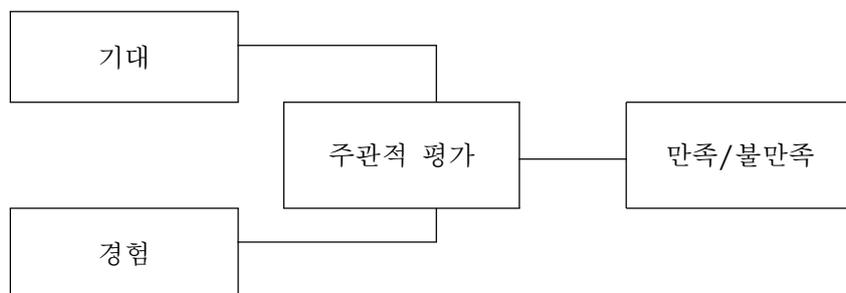


그림 II-6. 기대와 경험에 의한 주관적 만족도

Driver(1976)는 레크리에이션을 심리적 측면에서 원인적 요소와 결과적 요소로 구분하고 레크리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욕구(needs), 이유(reason), 동기(motivations)는 추구하게 될 원인적 요소로 보았으며, 만족도(satisfaction), 욕구충족(need satisfaction)과 심리적 결과(psychological outcome) 등은 결과적 요소로 보았다. 그리고 Hunt(1977)는 '아무리 즐거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대한 것만큼 즐겁지 않으면 불만족'이라고 하여 만족의 개념을 경험에서 출발한 형태로서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미리 기대한 수준과 실제로 경험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감정의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조성희,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들의 만족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다. 즉, 만족은 이전의 기대와 이후의 경험이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서 평가(박수정, 1996)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만족도의 특성

인간은 활동하고자 하는 근원적 욕구를 신체활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만족감은 물론이고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체력향상, 건강유지, 기분전환, 건전한 여가활동, 삶의 질 향상, 행복과 복지의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손의주, 2004). Ragheb 등(1983)은 여가활동에 참여 혹은 선택한 결과로서 얻어지거나 형성되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긍정적인 인지정도가 만족이며, 개인의 일반적인 경험과 상황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동기 충족의 관점에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제시하였다. 여가만족척도는 여가활동을 통해서 성취, 형성되는 주관적 욕구나 만족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위해서 고안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만족의 개념은 개인이 선택한 여가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인지의 정도로써 정의된다(Ragheb 등, 1983). 이는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만족감이며, 이렇듯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감정은 개인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만족감으로부터 비롯됨을 말한다(박수정, 1996 재인용).

Ragheb 등(1983)이 개발한 여가만족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요인 : 인간은 선택의자유가 제공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내적으로 동기화가 되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인간들은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개인적 재능과 능력을 시험할 수 있고 또 성취감을 맛봄과 동시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적 요인 : 인간들은 여가를 통해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그 자신에 대해 학습하길 원한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의 추구, 호기심 만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김미, 1997).

사회적 요인 : 인간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집단이나 협회

등에 참여하고자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타인과 친교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좋은 대인관계 유지가 자발적인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김미, 1997).

휴식적 요인 : 일에서부터 휴식으로서 스포츠와 놀이를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가가 휴식, 삶과 노동으로부터의 긴장해소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김미, 1997).

신체적 요인 : 사람들은 건강유지와 근력강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다(Kraus, 1971). 신체적 활동은 비만 방지와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준다.

환경적 요인 : Rutledge는 가시거리 내에 있는 모든 물체가 완벽하게 보일 때 강한 미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에 대한 물리적 환경이 아름답고 잘 꾸며졌을 경우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손의주, 2004 재인용).

표 II-3. 여가만족 척도(LSS)

항 목	내 용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	즐거움, 소속감, 자유의 정도
교육적 요인(educational factors)	지적 환경, 학습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대인유지, 사고
휴식적 요인(relaxational factors)	휴식, 긴장감 해소
신체적 요인(physiological factors)	건강, 체력유지, 신체개발
환경적 요인(aesthetic factors)	아름다움, 미적 보상

3) 만족도의 유형

인간의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왔으며, 아직도 세계의 곳곳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다. 스포츠 활동 참여란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활동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문화를 획득해나가는 사회화 과정의 하나이다. 스포츠 활동 참여는 스포츠 현상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으로서 참가의 방법, 시간, 장소 등에 의해 참가유형이 서로 달라지며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역할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가 유형을 여러 각도에서 세분화 할 수 있다. Kenyon과 Schutz는 스포츠 활동 참여유형을 참여정도에 따라 일상적 참여, 주기적 참여, 일탈적 참여, 소극적 참여로 구분하였다(박태준, 2004 재인용).

첫째, 일상적 참여(normal involvement) : 스포츠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생활과 잘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둘째, 주기적 참여(cyclic involvement) : 일정기간 동안에 이따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 일탈적 참여(divergent involvement) :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동적 참여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소비가 지나쳐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몰두한 상태를

의미하며, 능동적 참여란 본연의 작업을 중단하고 개인의 삶을 스포츠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소극적 참여(withdrawal involvement) : 일탈적 참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포츠와 어떠한 관련도 싫어하며 스포츠 역할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해도 기회 부족, 흥미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4. 선행연구 고찰

1) 오름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오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오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지리·지질학분야에 한정되어 왔다. 김태호(2001, 2003)는 제주도의 화산지형인 오름이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탐방객들의 집중적인 탐방이 오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산로 개설과 오름 휴식년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름이 한번 훼손되면 쉽게 복구되기 힘들며 그 시간과 경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윤정수(1995)의 제주도 북사면의 기생화산에 대한 연구와 권병두, 오석훈, 이희순, 정현기(1993)의 제주도 기생화산의 자연전위이상이라는 연구에서 오름이 형성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고남수(2002)는 사진적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오름이라는 연구에서 오름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경관적 가치뿐 아니라 자연의 보고로서 지켜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윤용택(2004)은 제주인과 오름이라는 연구에서 오름의 가치를 단순한 화폐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심미적, 위락적, 학술적, 경제적 가치 등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름과 관련해서 인문, 자연,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의 연구로 '오름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름의 무절제한 개발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신영대(2004)는 제주문화 속의 오름이라는 연구에서 인문, 역사학적으로 오름은 제주인의 생활 근거지였고 신앙의 터전이었으며 항쟁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온 제주인들의 손길이 닿은 결과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복합체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오름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고은경(2003)은 오름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오름이 훼손을 방지하고 관광객들을 유치를 통하여 오름을 즐기고 동시에 오름을 보존하고 아껴야 한다는 자극을 줌으로써 오름을 바라보는 가치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소영(2006)은 제주도 용늪이 오름의 경관설계에서 오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다 많이 알리고 그 가치를 알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은 인간이 간섭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이 최상이지만 인간과 자연이 조우할 때 역시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오름에 대한 체육학분야에서의 연구로는 오름 트레킹이라는 자연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참여 후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운동심리학적 접근으로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 지속동기 및 만족도 그리고 참여제약에 대한 질적인 연구(부공민, 양명환, 2005, 2006)가 이루어 졌다. 먼저, 참여동기, 지속동기와 만족도의 연구에서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는 이유로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심미적, 심리적 동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고 그러한 지속적인 참여의 효과 또는 혜택에서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오름 트레킹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동기 요인으로 오름이 주는 자연의 매력이나 자연친화적인 성향의 심미적 동기와 기존의 학습동기와 유사하지만 제주만이 가지는 특이한 문화를 아우르고 있는 오름에 대한 관심과 자연생태학적 탐구의 교육적 동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적 동기로 분류된 용이성은 접근이 용이하여 제약이 적다는 뜻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말하며 이는 오름 트레킹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동기요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름 동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다가 중단된 이유나 원인인 제약에 대한 질적인 연구(부공민, 양명환, 2006)에서 오름 트레킹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불만족한 이유들로 시간부족, 조직 내 갈등, 동반자 부재, 동기부족, 신상의 변화, 이동제약, 흥미전환, 법적제약의 8개 요인이며 시간부족을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름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의 전달을 위한 구조적인 인프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하여 오름을 감시하고 안내하기 위한 오름 해설사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오름 트레킹에 참여동기와 지속동기로 사회적동기와 신체적 동기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만족도에서는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만족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참여제약은 시간부족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운동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오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초석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확장으로 정량적인 분석기법과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는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참여동기와 제약 그리고 만족도간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오름 트레킹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경제적인 풍요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가의 효율적인 활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여가활동의 참여와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활동과 참여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을 나열해 보면, 이철화(1995)는 기혼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이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취미, 오락과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혼 여성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만족은 참여동기 및 참여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스포츠 활동을 행하면서 느끼는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스포츠 활동 참여 만족도의 개념으로 보았다.

박수정(1996)은 수상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연령, 학력이 높고 직업이 전문화될수록 수상 스포츠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여가 기회를 폭넓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이 수상스포츠가 극히 제한적인 여가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병기(1997)의 성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영향이 많으며,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김옥태, 정용승, 채재성(1999)은 생활체육 참가자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는 여가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가만족을 통하여 간접적인 인과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송성미(2003)는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지향형, 자기개발형, 가정지향형 동기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창규(1999a)는 스포츠에 대한 자의식 수준을 집단별 본 결과, 고자의식이 204명, 저자의식이 201명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 간의 죄의식보다 스포츠에 대한 자의식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안창규(1999b)는 스포츠 소비자의 참여동기와 스포츠 관여와의 상호관계에서 건강체력지향, 즐거움지향이 강할수록 스포츠에 대한 관여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성희(2001)의 도시 주부의 댄스스포츠 참여동기, 참가정도,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참가동기에 따라 여가만족도 즉,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여가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적, 생리적, 및 환경적 여가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광수(2003)는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스포츠 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동기의 내적동기를 나타내는 기술발달, 즐거움 요인이 외적동기 요인인 사교, 건강/체력, 외적과시 요인보다 스포츠 몰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스포츠 몰입은 참가 후 행동에 중요한 매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창기(2003)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동기는 정화/성취, 건강/체력, 사회성동기, 즐거움의 4개의 요인으로 나누었고, 참여동기 중 사회성 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생활만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활만족도에서는 건강/체력 동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태준(2004)의 마라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만족은 연령과 참여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도전/즐거움, 사회적 동기, 건강/체력, 외적동기 순으로 참여동기가 참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참여동기, 참여만족 및 참여의도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건강/체력, 도전/즐거움 동기요인이 참여만족과 재 참여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동기는 참여만족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재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높게 나

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안선희(2005)는 성인여성의 무용 활동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 연구에서 참여동기와 만족도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건강지향형 요인과 취미오락형 요인이 높으면 신체적 만족 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사교지향형 요인과 가정지향형 요인이 높으면 사회적 만족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개발형 요인이 높으면 교육적 만족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재형(2005)은 모험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요인은 자아실현, 지전/미적추구, 기분전환, 소속/사교 요인이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동현 및 김승철(2003)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기간은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가족과의 관계, 경제수준 등 비교적 삶의 질의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참여기간이 길수록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이종근, 김민환, 유양섭(2004)은 라켓스포츠의 참여동기와 자아실현의 관계에서 참여동기는 자아실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발의 의욕이 높을수록 자기실현과 포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손의주(2004)는 청소년의 인라인스케이트 참여동기는 지적요인의 경우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휴식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효능, 휴식적 동기요인은 모든 만족도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김용인, 정갑석, 장호중, 김정목, 정석현(2004)은 레저스포츠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레저스포츠 참여자가 비 참여자 보다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여가만족이 높으며, 휴식적, 환경적 및 심리적 여가만족은 레저스포츠 참가 기간이 길수록 높고,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여가만족은 기간이 길수록, 자주 참가할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은형 및 김갑수(2005)는 태권도 수련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의 관계에서 지적동기, 사회적 동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인지적 동기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로는 전매희 및 윤지희(2006)는 생활체육 참여 동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생활체육 참여 동기 중 가장 큰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심리적 메커니즘인 내적동기가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외적인 환경적 요소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며 공감하는 주체적 내적동기가 생활체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지속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영희 및 최길례(2006)는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중 기술발달, 컨디션, 사교 요인이 참여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철형(2006)은 스키리조트 이용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서 동기와 만족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동기는 환경적 만족을 제외한 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신체적, 사회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황지현(2006)은 청소년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동기가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력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사회만족, 심리만족, 교육만족, 신체만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신체활동의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만족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기의사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오름 트레킹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2006년 4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별오름⁹⁾, 바리메¹⁰⁾, 노꼬메¹¹⁾, 다랑쉬¹²⁾ 등 20여 곳의 오름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방법으로 표집한 413명 이었다. 설문지는 총 413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미 기입된 자료를 제외한 328명의 자료만을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변 인	범 주	빈 도(n)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 별	남자	169	51.5	51.5
	여자	159	48.5	100.0
연 령	20대 이하	53	16.2	16.2
	30대	111	33.8	50.0
	40대	115	35.1	85.1
	50대 이상	49	14.9	100.0
결혼유무	미혼	113	34.5	34.5
	기혼	215	65.5	100.0
참여기간	1년 미만	78	23.8	23.8
	1년 이상 3년 미만	117	35.7	59.5
	3년 이상 5년 미만	61	18.6	78.0
	5년 이상	72	22.0	100.0
참여빈도	월 1회 미만	50	15.2	15.2
	월 1~2회	114	34.8	50.0
	월 3~4회	116	35.4	85.4
	월 5회 이상	48	14.6	100.0
참여형태	동호회	141	43.0	43.0
	가족	83	25.3	68.0
	친구, 직장	81	24.7	93.0
	혼자	23	7.0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내용은 오름 트레킹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참여자의 성과 결혼유무는 남성과 여성, 미혼과 기혼의 이분척도로, 연령, 참여기간은 “귀하께서는 오름 트레킹을 시작하신지 어느 정도이신지요?”, 참여빈도는 “오름 트레킹을 월 몇 회 참여하시는지요?”의 개방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참여형태는 세부항목으로 각각 4개의 범주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참여동기를 묻는 28문항과 만족도에 대한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자세한 구성 지표 및 내용 그리고 문항 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성(1), 연령(1), 결혼유무(1) 참여기간(1), 참여빈도(1), 참여형태(1)	6문항
참여동기	심리적(7), 심미적(4), 교육적(4), 사회적(8), 신체적(5)	28문항
만족도	심리적(8), 심미적(3), 교육적(7), 사회적(3), 신체적(5)	26문항
총 문항		60문항

1) 참여동기

본 연구의 참여동기 측정도구는 부공민 등(2005)의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에 대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와 양명환(2004)의 여가스포츠의 참여동기에 대한 선행 문헌을 참고하여 심리적 요인 7문항, 심미적 요인 4문항, 교육적 요인 4문항, 사회적 요인 8문항, 신체적 요인 5문항으로 5차원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여동기 척도의 응답형태는 5점 Likert-type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동기의 인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만족도

참여하는 기대와 참여한 후 효과의 일치로 평가되는 만족도의 측정도구는 부공민 등(2005)의 오름 트레킹 만족도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의 결과와 이철화(1995)의 참여만족도에 대한 선행 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5개의 세부항목별로 심리적 요인 8문항, 심미적 요인 3문항, 교육적 요인 7문항, 사회적 요인 3문항, 신체적 요인 5문항의 총 26문항이 “나는 오름 트레킹을 하면서()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지시문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오름 트레킹 의견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귀납적 내용분석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6년 4월 11일부터 5월2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는 2006년 5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바리메를 시작으로 20여 곳의 오름에서 총 2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여 응답 시 유의사항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질문내용에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한 연구의 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본 연구의 절차

4. 자료처리

회수된 자료는 413부였으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내용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및 미 기입된 자료 57부를 제거하여 코딩작업을 하였고 2차적으로 응답에 고정화를 보이는 자료 28부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328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가능한 자료를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1)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통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Item-Total Correlation과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3)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측정도구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자체 제작한 척도를 이용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참여동기와 만족도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들은 어떠한 요인구조로 나타나는가?”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Item-Total Correlation과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1) 참여동기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참여동기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인 문항과 공통분산치(communality)가 .40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고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4개의 요인 참여동기 17문항이 추출되었다.

<표 I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1’은 운동을 목적으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 체크 및 관리차원에서, 체중조절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체적 동기”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3.517이고 전체분산의 20.69%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2’는 다양한 생태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제주를 알고 싶어서,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오름에 대해 알고 싶어서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적 동기”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가 2.592이고 전체분산의 15.2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3’은 동호회에 가입 활동하면서, 모임의 친목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동기”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2.022이고 전체분산의 11.89%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4’는 오름과 자연이 좋아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 곱고 아름다운 오름 능선을 보고 싶어서,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리적 동기”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009이며 전체분산의 11.82%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오름 트레킹 참여자의 참여동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계수 및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항-전체 상관계수들의 범위는 .26-.54로 나타나 특정 요인내의 문항 동질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81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87-.6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IV-1. 참여동기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문항	요인 적재치				공통분	문항-전체 상관계수
	1	2	3	4		
27. 운동을 목적으로	.881	.017	.107	.059	.791	.517
19. 체력단련을 위해서	.859	.017	.091	.085	.753	.508
25. 건강 체크 및 관리차원에서	.827	.025	.112	.135	.716	.517
14. 체중조절(다이어트)을 위해서	.731	.160	-.017	-.094	.569	.383
10. 건강증진을 위해서	.718	-.036	.060	.208	.563	.439
12. 다양한 생태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065	.795	.006	.034	.637	.383
3.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서	-.064	.721	.048	.042	.518	.304
13.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096	.693	.059	.128	.485	.402
2. 제주를 알고 싶어서	-.033	.635	.119	.258	.510	.380
26. 오름에 대해 알고 싶어서	.116	.575	.247	.263	.488	.510
9. 동호회에 가입 활동하면서	-.053	.024	.805	.036	.653	.231
18.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017	.216	.784	.095	.700	.495
28. 모임의 친목을 위해서	.174	.085	.771	-.003	.632	.375
5. 오름과 자연이 좋아서	.029	.041	.020	.814	.665	.301
1.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	.220	.138	-.045	.620	.454	.349
8. 곱고 아름다운 오름 능선을 보고 싶어서	-.113	.201	.209	.604	.462	.287
24.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318	.287	-.026	.593	.535	.468
고유치	3.517	2.592	2.022	2.009		
공통분산%	20.691	15.250	11.892	11.818		
누적분산%	20.691	35.941	47.833	59.652		
Cronbach's Alpha	.875	.757	.718	.650		

2) 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참여만족도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인 문항과 공통분산치(communality)가 .40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고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3개의 요인 참여만족 15문항이 추출되었다.

표 IV-2. 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문항	요인 적재치			공통분	문항-전체 상관계수
	1	2	3		
24.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836	.114	.177	.744	.729
18. 체력이 단련되었다	.817	.256	.165	.760	.785
14. 건강이 좋아졌다	.795	.291	.219	.765	.800
26. 몸이 가뻐해졌다	.743	.310	.186	.683	.731
3. 심폐기능이 향상되었다	.686	.387	.109	.633	.686
12.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278	.791	.129	.719	.700
19. 상쾌함과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219	.714	.248	.620	.654
23.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241	.689	.305	.626	.681
1. 마음이 편안해졌다	.257	.655	.229	.548	.618
15.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359	.598	.293	.571	.623
7. 오름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064	.276	.743	.633	.635
13. 제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121	.286	.696	.582	.613
16.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142	.308	.689	.590	.617
20.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32	-.047	.685	.526	.456
25. 오름을 알게 되었다	.243	.326	.646	.583	.614
고유치	3.553	3.166	2.863		
공통분산%	23.684	21.108	19.085		
누적분산%	23.684	44.792	63.877		
Cronbach's Alpha	.897	.847	.804		

<표 IV-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1'은 체중관리에 도움, 체력단련, 건강이 좋아짐, 심폐기능의 향상, 몸이 가뻐해짐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체적 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3.553이고 전체분산의 23.6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스트레스 해소, 상쾌함과 개운함, 행복감을 느낌, 마음이 편안함, 삶의 활력소의 5문항으로 "심리적 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3.166이고 전체분산의 21.1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오름을 아끼는 마음이 생김,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 제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야생화에 관심, 오름을 알게 됨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적 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2.863이고 전체분산의 19.08%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계수들의 범위는 .45-.80으로 나타나 특정 요인내의 문항 동질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1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89-.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 IV-3.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성별		F (df=1, 326)	P
	남 (n=169)	여 (n=159)		
신체적 동기	3.74±.85	3.73±.95	.007	.934
교육적 동기	3.53±.73	3.43±.76	1.636	.202
사회적 동기	3.19±.87	3.09±.94	1.134	.288
심리적 동기	4.12±.62	4.32±.55	9.342	.002

*평균±표준편차

<표 IV-3>은 참여동기를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심리적 동기 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동기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 IV-4. 연령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연령				F (df=3, 324)	P
	20대 이하 (n=53)	30대 (n=111)	40대 (n=115)	50대 이상 (n=49)		
신체적 동기	3.45±.87 ^a	3.54±.93 ^a	3.91±.88 ^b	4.11±.68 ^b	8.368	.000
교육적 동기	3.43±.67	3.49±.77	3.46±.78	3.58±.71	.250	.861
사회적 동기	3.24±.84	3.14±.87	3.13±.97	3.08±.95	.302	.824
심리적 동기	4.15±.59	4.25±.62	4.25±.56	4.13±.63	.760	.517

*평균±표준편차

*abc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이하 동일).

<표 IV-4>는 참여동기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체적 동기 요인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 이하와 30대, 40대와 50대 이상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나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유무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 IV-5. 결혼유무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결혼유무		F (df=1, 326)	P
	미혼 (n=113)	기혼 (n=215)		
신체적 동기	3.39±.93	3.92±.83	28.247	.000
교육적 동기	3.55±.69	3.44±.77	1.547	.215
사회적 동기	3.25±.83	3.09±.95	2.487	.116
심리적 동기	4.15±.62	4.25±.58	2.240	.135

<표 IV-5>는 참여동기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결혼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체적 요인에서 결혼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동기 요인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 IV-6.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참여기간				F (df=3, 324)	P
	1년 미만 (n=78)	1년~3년 (n=117)	3년~5년 (n=61)	5년 이상 (n=72)		
신체적 동기	3.55±.87	3.87±.84	3.67±1.00	3.79±.91	2.175	.091
교육적 동기	3.45±.72	3.46±.75	3.51±.77	3.52±.76	.184	.907
사회적 동기	3.23±.88	3.14±.93	3.25±.89	2.95±.88	1.602	.189
심리적 동기	4.13±.57	4.31±.59	4.15±.60	4.21±.58	1.721	.163

<표 IV-6>은 참여동기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참여동기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 IV-7.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참여빈도				F (df=3, 324)	P
	월1회 미만 (n=50)	월1~2회 (n=114)	월3~4회 (n=116)	월5회 이상 (n=48)		
신체적 동기	3.49±1.00 ^a	3.58±.89 ^a	3.98±.76 ^b	3.80±.98 ^{ab}	5.331	.001
교육적 동기	3.48±.76	3.41±.70	3.55±.81	3.49±.68	.698	.554
사회적 동기	3.14±.86	3.12±.81	3.19±.99	3.09±.98	.160	.923
심리적 동기	4.20±.58	4.12±.62	4.31±.53	4.21±.65	1.958	.120

<표 IV-7>은 참여동기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체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여빈도가 월 3~4회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월 1회 미만인 참여자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참여형태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 IV-8. 참여형태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참여형태				F (df=3, 324)	P
	동호회 (n=141)	가족 (n=83)	친구, 직장 (n=81)	혼자서 (n=23)		
신체적 동기	3.58±.91 ^a	3.96±.76 ^b	3.83±.90 ^{ab}	3.57±.11 ^a	3.728	.012
교육적 동기	3.61±.72 ^b	3.28±.81 ^a	3.45±.66 ^{ab}	3.48±.80 ^{ab}	3.463	.017
사회적 동기	3.60±.83 ^c	2.75±.77 ^{ab}	2.93±.77 ^b	2.55±.1.03 ^a	26.874	.000
심리적 동기	4.17±.64	4.27±.64	4.26±.53	4.13±.59	.810	.489

<표 IV-8>은 참여동기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동기의 3요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요인은 가족과 친구, 직장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호회와 혼자서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적 요인에서는 동호회가 가장 높고 가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서도 동호회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혼자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표 IV-9.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성 별		F (df=1, 326)	P
	남 (n=169)	여 (n=159)		
신체적 만족	3.98±.78	4.03±.76	.289	.591
심리적 만족	4.31±.58	4.44±.56	4.074	.044
교육적 만족	4.07±.63	4.07±.67	.003	.955

<표 IV-9>는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심리적 만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동기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표 IV-10.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연 령				F (df=3, 324)	P
	20대 이하 (n=53)	30대 (n=111)	40대 (n=115)	50대 이상 (n=49)		
신체적 만족	3.64±.75 ^a	3.84±.76 ^a	4.15±.74 ^b	4.44±.58 ^c	13.552	.000
심리적 만족	4.24±.66 ^a	4.30±.58 ^{ab}	4.44±.55 ^{bc}	4.55±.48 ^c	3.649	.013
교육적 만족	3.85±.74 ^a	4.06±.61 ^{ab}	4.15±.67 ^b	4.12±.56 ^b	2.674	.047

<표 IV-10>은 만족도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대 이하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적 요인에서는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이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결혼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표 IV-11. 결혼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결혼유무		F (df=1, 326)	p
	미혼 (n=113)	기혼 (n=215)		
신체적 만족	3.66±.74	4.19±.72	38.034	.000
심리적 만족	4.20±.62	4.47±.53	16.266	.000
교육적 만족	4.03±.66	4.09±.65	.728	.394

<표 IV-11>은 만족도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결혼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요인 모두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참여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표 IV-12. 참여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참여기간				F (df=3, 324)	p
	1년 미만 (n=78)	1년~3년 (n=117)	3년~5년 (n=61)	5년 이상 (n=72)		
신체적 만족	3.85±.76	4.06±.80	4.03±.72	4.05±.75	1.340	.261
심리적 만족	4.27±.60	4.41±.57	4.41±.60	4.39±.53	1.066	.364
교육적 만족	3.95±.66	4.07±.71	4.15±.56	4.13±.61	2.467	.224

<표 IV-12>는 만족도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빈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표 IV-13. 참여빈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참여빈도				F (df=3, 324)	P
	월1회 미만 (n=50)	월1~2회 (n=114)	월3~4회 (n=116)	월5회 이상 (n=48)		
신체적 만족	3.76±.85 ^a	3.85±.75 ^a	4.20±.68 ^b	4.16±.79 ^b	6.558	.000
심리적 만족	4.28±.62 ^a	4.25±.59 ^a	4.49±.54 ^b	4.50±.51 ^b	4.595	.004
교육적 만족	3.88±.71 ^a	3.98±.67 ^{ab}	4.19±.61 ^b	4.07±.65 ^b	3.808	.010

<표 IV-13>은 만족도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만족도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월 3~4회와 월 5회 이상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월 1~2회와 월 1회 미만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6)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표 IV-14.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참여형태				F (df=3, 324)	P
	동호회 (n=141)	가족 (n=83)	직장(친구) (n=81)	혼자서 (n=23)		
신체적 만족	3.92±.77	4.18±.65	3.99±.81	3.94±.94	1.953	.121
심리적 만족	4.34±.60	4.38±.57	4.43±.57	4.40±.47	.517	.671
교육적 만족	4.22±.57 ^b	3.90±.71 ^a	3.98±.67 ^{ab}	4.05±.67 ^{ab}	4.806	.003

<표 IV-14>는 만족도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만족도의 교육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요인에서 동호회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가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상관분석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상관분석 결과

	신체적 동기	교육적 동기	사회적 동기	심리적 동기	신체적 만족	휴식적 만족	교육적 만족	전체 만족도
신체적 동기	1.000							
교육적 동기	.142**	1.000						
사회적 동기	.180**	.243**	1.000					
심리적 동기	.315**	.252**	.120*	1.000				
신체적 만족	.644**	.220**	.138*	.311**	1.000			
심리적 만족	.419**	.312**	.131**	.428**	.656**	1.000		
교육적 만족	.238**	.519**	.246**	.287**	.490**	.615**	1.000	
전체 만족도	.526**	.420**	.204**	.393**	.855**	.849**	.818**	1.000
M	3.74	3.48	3.15	4.22	4.01	4.38	4.07	3.48
SD	.90	.75	.90	.59	.77	.58	.65	.75

* P<.05, ** P<.01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간의 관계에서 참여동기, 만족도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요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신체적 동기와 신체적 만족, 교육적 동기와 교육적 만족, 심리적 동기와 심리적 만족 간에 다소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2)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회귀분석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단계로 <표 IV-15>에서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참여동기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만족도 3가지 요인과 전체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1) 참여동기가 신체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IV-16. 참여동기가 신체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표준오차			
	(상수)	1.195	.262		4.569	.000
신체적 만족	신체적 동기	.512	.038	.599	13.487	.000
	교육적 동기	.117	.045	.114	2.574	.011
	사회적 동기	-.008	.037	-.009	-.207	.836
	심리적 동기	.122	.058	.095	2.101	.036
R=.663 R ² =.439 F(4, 323)=63.240 p<.000						

<표 IV-16>은 신체적 만족 요인에 대한 참여동기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계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정규분포성 등 기본가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체적 만족과 모든 참여동기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138-.644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16>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43.9%(R²=.439)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 323)=63.240 p<.000]. 또한,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동기(Beta=.599)가 가장 높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교육적 동기(Beta=.114), 심리적 동기(Beta=.095)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적 동기가 높을수록 신체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동기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신체적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참여동기가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IV-17. 참여동기가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표준오차			
	(상수)	1.977	.217		9.090	.000
심리적 만족	신체적 동기	.194	.032	.303	6.139	.000
	교육적 동기	.154	.038	.200	4.072	.000
	사회적 동기	-.004	.031	-.006	-.121	.904
	심리적 동기	.274	.048	.282	5.652	.000
R=.556 R ² =.309 F(4, 323)=36.163 p<.000						

<표 IV-17>은 심리적 만족 요인에 대한 참여동기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계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정규분포성 등 기본가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리적 만족과 모든 참여동기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131-.428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17>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32.3%($R^2=.323$)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 323)=36.163 p<.000]. 또한,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동기(Beta=.303)가 가장 높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심리적 동기(Beta=.282), 교육적 동기(Beta=.200)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동기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심리적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참여동기가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IV-18. 참여동기가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표준오차			
	(상수)	1.593	.244		6.527	.000
	신체적 동기	.084	.035	.116	2.380	.018
교육적 만족	교육적 동기	.389	.042	.446	9.171	.000
	사회적 동기	.073	.032	.102	2.134	.034
	심리적 동기	.137	.054	.125	2.526	.012
R=.566 R ² =.320 F(4, 323)=38.050 p<.000						

<표 IV-18>은 교육적 만족 요인에 대한 참여동기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계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정규분포성 등 기본가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육적 만족과 모든 참여동기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238-.519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18>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32.0%($R^2=.32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 323)=38.050 p<.000]. 또한,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교육적 동기(Beta=.446)가 가장 높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심리적 동기(Beta=.125), 신체적 동기(Beta=.116), 사회적 동기(Beta=.10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동기가 높을수록 교육적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참여동기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IV-19. 참여동기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표준오차			
	(상수)	1.538	.193		7.949	.000
전체 만족도	신체적 동기	.262	.028	.420	9.341	.000
	교육적 동기	.231	.034	.308	6.884	.000
	사회적 동기	.020	.027	.032	.725	.469
	심리적 동기	.170	.043	.179	3.939	.000
R=.653 R ² =.424 F(4, 323)=60.118 p<.000						

<표 IV-19>은 전체만족도에 대한 참여동기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계모형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정규분포성 등 기본가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체 만족도와 모든 참여동기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240-.526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19>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42.4%(R²=.424)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 323)=60.118 p<.000]. 또한,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동기(Beta=.420)가 가장 높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교육적 동기(Beta=.308), 심리적 동기(Beta=.179), 사회적 동기(Beta=.03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인의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V. 논의

현대사회는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여가활동 참여가 증대되면서 참여이유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참여로 인해 파생되는 신체적인 건강혜택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게 되었다(김소연, 2006). 최근 제주에서는 오름이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산을 오르며 자연과 함께하는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참여하려는 이유와 참여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름 트레킹이 늘어난 여가시간의 활용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자 오름 트레킹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오름 트레킹이라는 상황에서 특정한 동기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도구제작에 자료를 얻기 위하여 1차적으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오름 트레킹 참여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얻어낸 자료와 제보자 6명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 방식을 통하여 얻어낸 자료, 그리고 오름 동호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문헌(오름사랑, 2002)과 인터넷상의 가입인사와 답사일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심미적, 심리적 요인으로 참여동기와 만족도에서 각각 동일한 5개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부공민, 양명환, 2005). 2차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참여동기 28문항, 만족도 26문항의 질문지를 완성하였고 최대한 선행연구에서 발췌된 항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오름 트레킹 현장에 참여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당수의 선행논문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회상적인 자기보고형(retrospective self-report) 질문지법의 방법론적인 약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분명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로 선행연구(부공민 등, 2005)의 심미적 동기 요인을 제외한 4개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동기요인들과 선행연구들의 비교는 방법론적인 차이, 상이한 모집단, 특정한 여가활동 및 동기항목의 수와 종류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확인된 동기 차원들은 스포츠심리학과 여가연구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 전형적으로 출현하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항목들과 차이는 다소 있으나 Gill, Gross, Huddleston(1983)의 체력, 기술개발, 즐거움, 친화의 4가지요인들과 Clough, Shepherd, Maughan(1990)의 심리적 안녕, 사회적 동기, 건강/체력, 탐닉의 요인들과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김외숙(1991)과 이철화(1995)의 건강지향, 자기개발의 요인들과 유사하며 특히, 양명환(2000)의 학습, 친화(사교동기), 건강/체력, 즐거움동기의 요인들과 이광

수(2003)의 모험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발달, 즐거움, 사고, 건강 체력 요인들이 매우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면 Kenyon(1968), Gill 등(1983), Klint & Weiss(1987), Clough 등(1990)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동기요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이었으며, 그 요인들의 명칭은 신체적 건강, 건강지향, 건강/체력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모두 신체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들이다. 사회적 동기 요인도 Clough 등(1990), 이철화(1995), 김나미(1997)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동기로 사고지향, 사고동기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교육적 동기요인은 김외숙(1991), 이철화(1995)의 자기개발과 양명환(2000)의 학습, 정용각(1998)의 기술습득 등이 유사한 요인이며, 심리적 동기요인은 여가활동의 중요한 동기요인의 하나로 Johnsgard(1985)의 즐거움, 박태준(2004)의 즐거움/도전동기도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들은 일반적인 여가활동 및 스포츠 참여동기 범주로 본 연구에서 출현하는 4가지 일반영역의 동기구조들은 참여동기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요인들이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여가동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학습동기의 기술습득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오름 트레킹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신체활동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 파생된 결과로 본다. 또한, 오름 트레킹에 대한 선행연구(부공민 등, 2005)의 결과에서 심미적 동기요인을 제외한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동기요인이 재확인 되었고 심미적 동기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심미적 요인의 문항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선정의 문제로 사료되어 추후 세심한 재검증 작업이 요구된다.

만족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만족의 3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참여동기의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가 만족에서도 확인되었었으며, 사회적 요인을 제외하고 참여동기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Ragheb & Beard(1983)과 이철화(199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신체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보편적인 만족도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참여동기에서는 나타났지만 만족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사회적 동기에서 가족관계개선, 대인관계개선, 새로운 사람을 사귀,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 등에 대한 문항이 만족도에 포함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도구개발 시 참여동기에 포함된 문항들을 적절하게 포함시켜 만족도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도시근교에 있는 오름을 중심으로 트레킹코스(산책로)가 정비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산책로(등반로)나 오름 입구에 설치되고 있는 오름 표지석(오름 설명 포함) 시설 등의 만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동기와 만족도 측정도구의 요인 적재치는 비교적 분명하고 명확한 요인들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구의 타당도나 신뢰도 계수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몇몇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요인들의 항목수가 불균등한 점 그리고 몇 개의 항목이 분류된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을 보이고 있어 추후 세심한 재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1)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동기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송성미(2003), 손의주(2004), 이창기(2003) 등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최근 여성들이 자아실현 등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의 결과로 보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패러클라이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채(2002)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동기요인은 남성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의 연구에서 보면 남성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동기요인임에도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음은 여성들이 과거의 소극적 활동과는 달리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폭넓은 인간관계와 왕성한 신체활동으로 여권의 신장이 여가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신체적 동기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적 동기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박경호(2002), 이창기(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고령자의 스포츠 참여유형에 대한 연구(김종표, 1999)에서도 여가활동으로 산보를 가장 선호하고 그 이유로 소속감과 건강/체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 결과와 유병인(1999)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부담이 적은 신체활동을 선호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는 신체적 동기요인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혼자들에게 체력향상과 건강을 유지·증진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가벼운 신체활동이 가능한 오름 트레킹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참여빈도에 따른 차이는 신체적 동기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3~4회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참여횟수가 많아질수록 건강이나 체력관리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서성미(2002)와 최철형(2006)의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며,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는 동기들 중 건강증진이나 체력관리를 위한 신체적 요인이 오름 트레킹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부공민 등, 2005)에서 신체적 동기가 오름 트레킹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기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참여형태에 따른 차이는 심리적 동기 요인을 제외한 3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요인은 가족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교육적, 사회적 요인에서는 동호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름에 대한 관심이나 긍정적 대인관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확대시켜 긍정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심리적 만족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기채, 2002)와 스쿼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유원, 진병권, 2003)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최근의 연구로 전매희와 윤지희(2006)의 생활체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황지현(2006)의 해양레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여성들의 왕성한 활동참여에 비례하여 만족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름 트레킹의 특징인 자연친화적이고 가벼운 신체활동이라는 점과 감성적 부분이 접합되면서 여성들에게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만족도 모든 요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며, 특히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서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병기(1997), 박경호(2002)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만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황지현(200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만족, 교육만족, 신체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이는 50대 이상이 되면 사회 혹은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로 다른 운동종목이나 여가활동에 비해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신체활동인 오름 트레킹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성취감을 맛보는 등 삶의 활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는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신체적, 심리적 만족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박수정, 1996; 정기채, 2002; 최철형, 2006)에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미혼자보다 기혼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5년 이상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교육적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참여빈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모든 만족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월 3~4회 참여자들이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철형(2006)의 스키리조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교육적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즉, 참여기간이 길어지고 참여빈도가 많아질수록 오름 트레킹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형태에 따른 차이는 교육적 만족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호회를 통한 참여형태에서는 오름을 이해하고 제주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교육적 만족수준은 높으나 신체적 만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만족도가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평가의 개념으로서 동호회 참여자가 교육적 동기가 높아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분석

행동에 대한 사전 기대와 결과가 일치했을 때 그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선행의 여러 연구(김소연, 2006; 박태준, 2003; 양명환, 2004)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름 트레킹의 지속적인 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먼저, 오름 트레킹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동기, 만족도,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모든 변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동기와 신체적 만족, 교육적 동기와 교육적 만족, 심리적 동기와 심리적 만족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안선희(2005)의 연구에서 건강지향형과 신체적 만족, 자기개발형이 심리적 만족과 교육적 만족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외에도 여러 연구(김옥태 등, 1999; 박태준, 2004; 안선희, 2005; 이광수, 2003; 최철형, 2006)에서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여동기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참여동기의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 요인들이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태와 정용승 그리고 채재성(1999)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수순한 즐거움을 위해 활동자체를 추구하는 내적동기뿐만 아니라 체력단련, 대인관계, 기술발달과 같은 외적동기로 인하여 여가의 만족스러운 욕구가 충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영희 및 최길례(2006)의 연구에서 참여동기의 컨디션, 사고, 기술발달 요인이 참여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하위요인 간에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만족에는 신체적 동기(Beta=.599)가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교육적, 심리적 동기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적 만족에는 교육적 동기(Beta=.446)가 가장 높게 기여하며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철형(2006), 황지현(2006)의 결과가 본 연구와 일치하며, 특히 오름 트레킹을 통한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유지를 위한 신체적 욕구가 강할수록 신체적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오름을 알고 싶은 학습욕구가 강할수록 교육적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신체적 동기(Beta=.303)가 가장 높게 기여하고 있으며, 심리적, 교육적 동기 순으로 나타나 오름 트레킹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려는 운동 목적의 참여자들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상쾌함을 느낌으로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요인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신체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요인이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만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 오름 트레킹이 단순히 건강유지와 체력단련의 차원을 초월하여 휴식과 학습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위사람의 권유와 모임의 친목을 위한 사회적 동기가 만족도에서 비교적 낮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부공민 등, 2005)에서도 사회적 동기가 참여동기에서는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만족도에 오면서 심리적, 교육적, 신체적 만족이 높게 평가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그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학습이나 즐거움의 내재적인 이유가 동기와 만족간의 관계를 높여준다는 결과(김소연, 200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매희와 윤지희(2006)의 연구에

서도 외적인 요소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며 공감하는 내적동기가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동기의 중요성이 참여 지속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양명환(2000)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적동기에서 동기의 내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오름 트레킹의 참여제약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인 조직 내 갈등과 동반자 부재가 참여에 제약을 주는 중요한 요인(부공민, 양명환, 2006)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차후, 동기와 제약, 만족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최근 급증해진 오름 탐방이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잘 알려진 몇 개의 오름을 대상으로 오름 트레킹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해당 오름의 자연적인 복구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오름의 특성 때문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식년제의 도입과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개설이 필요(김태호, 2003)하며, 최근 노꼬메나 다량쉬 등의 몇 개의 오름에 등산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레킹 인구가 많은 오름에는 감시와 오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름 해설가의 육성과 배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트레킹이 활성화 되면서 보전에 문제가 따르고 이용규제가 강화되며 참여제약(부공민, 양명환, 2006)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름 트레킹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시키고 부정적 측면을 제거, 보완함으로써 의미 있는 신체활동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오름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오름 트레킹이라는 특정상황에서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차이, 그리고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오름 트레킹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유목적 표집방식을 이용하여 표집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413명이었으며, 이후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328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는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된 통계기법은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으로 Duncan검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동기 4개 요인과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만족의 3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둘째, 참여동기와 만족도는 참여기간을 제외한 성별, 연령, 결혼유무, 참여빈도, 참여형태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동기는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만족도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동기는 신체적, 심리적 만족에, 교육적, 심리적 동기는 모든 만족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동기는 교육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오름 트레킹과 관련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서 동기는 요인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되었으나 만족도의 요인구조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추후 세심한 재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지인(도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생태관광의 하나로 오름 트레킹이 각광받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속의도, 구전의도, 참여제약 등의 다양한 변인을 추가한 분석을 통하여 오름 트레킹의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오름 트레킹에 대한 참여동기와 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향후에는 등산이나 등반과 관련된 신체활동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내서

- 강유원, 진병권(2003). 스쿼시 운동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6)**, 379-389.
- 고남수(2002). 사진적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오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 고소영(2006). 제주도 용늪이오름의 경관계획.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고은경(2003). 제주도의 오름 생태관광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병두, 오석훈, 이희순, 정현기(1993). 제주도 기생화산의 자연전위이상. **한국자원공학회지**, **30**, 352-360.
- 김나미(1997).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와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미(1997). 생활체육 종목에 따른 참여자의 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병욱(2004). **경영혁신전략**. 서울: 김스정보전략연구소.
- 김소연(2006). 대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 심리적 웰빙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옥태, 정용승, 채재성(1999). 생활체육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3)**, 87-95.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96-376.
- 김용인, 정갑석, 장호중, 김정묵, 정석현(2004). 레저스포츠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1)**, 187-198.
- 김재건(1997). Bernard Weiner의 귀인이론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5**, 105-125.
- 김정아(1996). **트레킹 코스 조성계획**.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종철(1995). **오름 나그네**. 서울: 높은오름.
- 김종표(1999). 고령자의 여가·스포츠 참가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4)**, 887-903.
- 김태호(2001). 제주도의 화산지형과 보존. **자연보존**, **114**, 1-7.
- 김태호(2003). 한라산과 다랑쉬오름 등산로의 답압에 의한 토양 압밀현상.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169-179.
- 김효윤(1997). **레포트가이드**. 서울: 오성출판사.
- 류정무, 이강현(1990). **스포츠 심리학**. 서울: 민음사.
- 문창일, 김병준, 최만식, 문익수(2005). 한국판 스포츠동기 척도(KSMS-27)의 타당도 점검. **한국**

- 스포츠심리학회지, **16(2)**, 49-70.
- 민병기(1997). 성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와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학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경호(2002).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정(1996). 수상 스포츠 참여자의 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승필(1986). 제주도 기생화산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 373-378.
- 박태준(2004). 마라톤대회 참여동기, 참여만족 및 재 참여의도간의 관계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부공민, 양명환(2005). 오름 트레킹의 참여동기, 지속동기 및 참여만족도에 대한 귀납적 내용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0(2)**, 73-97.
- 부공민, 양명환(2006). 오름 트레킹 여가활동의 참여제약에 대한 귀납적 내용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2)**, 221-239.
- 서성미(2002). 블링동호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의주(2004). 청소년들의 인라인스케이트 참여정도와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성미(2003).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참여동기와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영대(2004). 제주문화 속의 오름. 탐라문화, **24**, 179-203.
- 안근석, 이용인(1996). 스포츠 심리학. 서울: 태근문화사.
- 안선희(2005). 성인여성의 무용 활동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창규(1999a). 스포츠 소비자의 준거집단 요인과 스포츠 참여동기가 스포츠 참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4)**, 759-771.
- 안창규(1999b). 스포츠소비자의 참여동기와 스포츠 관여와의 상호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3)**, 846-856.
- 양명환(1994).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2)**, 107-122.
- 양명환(2000). 여가스포츠의 참여동기, 제약요인 및 만족도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1)**, 161-178.
- 양명환(2004).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97-215.
- 오름사랑(2002). 오름사랑. 제주: 반석.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원종관(1976). 제주도에 분포하는 화산구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2**, 33-43.

- 유병인(1999). 스포츠활동 참여의사결정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4)**, 655-664.
- 윤용택(2004). 제주인과 오름. **탐라문화**, **24**, 153-178.
- 윤정수(1995). 제주도 북사면의 기생화산체에 관한 연구. **제주대 해양연보**, **19**, 25-38.
- 이강현, 구우영, 정구인, 정용각(2005). **스포츠 심리학**. 서울: 대한미디어.
- 이광수(2003).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 스포츠몰입,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동현, 김승철(2003). 중년여성의 여가 스포츠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127-148.
- 이문원(1994). 제주도의 형성사와 지질구조. **대한지하수환경학회(편)**, 54-74.
- 이영희, 최길례(2006). 댄스스포츠 참여동기와 참여만족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의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 99-111.
- 이재형(2005). 모험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참여동기가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4)**, 207-217.
- 이종근, 김민환, 유양섭(2004). 라켓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자아실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366-374.
- 이창기(2003).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철화(1995). **도시기혼여성의 스포츠참여 활동 및 참여동기 및 만족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재구, 임태성(2000).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여가스포츠 활동경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39(3)**, 942-951.
- 전매희, 윤지희(2006).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7(1)**, 299-308.
- 정기채(2002).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용각(1998). 스포츠 참여동기의 탐색적 요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13-132.
- 정인경(1999). **백두대간 트레킹 코스 계획**.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제주도(1997). **제주의 오름**. 제주: 신제주.
- 제주도청 환경정책과 2005년 9월 정보공개 자료 “오름 탐방 동호회현황”
- 제주발전연구원(2000).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제주: 나우.
- 조성희(2001). **도시 주부의 댄스스포츠 참가동기와 참가정도 및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조은형, 김갑수(2005). 태권도 수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847-858.
- 최철형(2006). **스키리조트 이용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현원학(2003).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의 지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황지현(2006). 청소년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동기가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2)**, 601-610.

■ 국외서

- Brockett(1976). *Toward a Classification of the Need Hierarchy Theory: Some Extensions of Maslow's Conceptualization*. *Interpersonal Development*, 6, 77-90.
- Carron(1980). *Social psychology of sport*. NY: Movement Publications.
- Clough, P., Maughan, R., & Shepherd, J.(1990).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recreational runn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 297-309.
- Driver, B.(1976). Research, Camping and Environmental Education. Qualification of Outdoor Recreationist's Preference. Pen State HPER Series, 165-187.
-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 Gill, D. L., Gross, J. B., & Huddleston, S.(1983).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th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Sport Psychology*, 14, 1-14.
- Harter, S.(1981).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motivation in the mastery of cognitive and physical skills: Is there still a place for joy. In *Psychology of Motor Behavior and Sport-1979*, edited by G. C. Roberts and D. M. Lander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unt.(197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Cambridge Mess: Marketing Science Institute, 459-460.
- Jackson & Button.(1989). *Motivation for Leisure i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Venture Publishing, inc.
- Johnsgard, K.(1985). The motivation of the long distance runner : I. *journal of Sports Medicine*, 25, 135-139.
- Kenyon, G. S.(1968). Six scales for assessing attitude toward physical activity. *Research Quarterly*, 39, 566-574.
- Klint, K. A., & Weiss, M. R.(1987). Perceived competence and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youth sport : A test of Hater's competence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9, 55-65.
- Kraus.(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ew York : The C. V. Mosby.
- McClelland, D. C.(1962). The Achieving society. Van Nostrand. Toward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20, 321-333.
- Oxford University Press(1995). *Oxford A d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5th ed.. Great Britain : Oxford University Press.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Tuson, K. M., & Briegre. N. M.(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ion in sport : The sport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7, 35-53.
- Ragheb, M. G., & Beard, J. G.(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 219-228.
- Ross, A. O.(1987). *Personality*. New York : Holt, Rhinehart and winston.
- Sage, G. H.(1977). *Introduction to motor behavior : A neuropsychological approach*(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N. M., Senecal, C., & Vallieres, E. F.(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Weiner, B.(1972). *Theories of Motivation: From Mechanism to Cognition*. Chicago: Rand McNally.
- Weiner, B.(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 Weiner, B.(1986). An attribution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g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기타

- 강시영(2007). 제주 세계자연유산등재. 한라일보 6월 27일자.
- 오재용(2007).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조선일보 6월 28일자.
- 이재홍(2007). 제주 화산섬 세계유산등재 확정. 제주의 소리 6월 27일자.

<http://www.walking.or.kr/> 한국체육진흥회

<http://orum.pe.kr/> 탐라의 원주민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Parasitic Volcano(Oreum) Trekking

Bu, Gong-Min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Ryew, Che-Ch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 structur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to trekking parasitic volcanos(Oreum) situated around Mt. Halla in jeju island. Participants were 328 Oreum trekkers who climb to parasitic volcanos situated around the Mt. Halla using purposive sampling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used SPSSWIN 12.0 program, and analyzed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one-way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results from these study procedure and analytic methods were as follows;

1.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identified 4 factors(physic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education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motivation) and 3 factors(physical satisfac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2. Both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factor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ll demographical variables except the participation duration.
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showed that physical, educational, social and psychological motivati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ll satisfaction variables. Also, physical motiv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otivation had significantly effect on all satisfaction variables. But Social motivation had only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Key Words : parasitic volcano(Oreum) trekking,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	--	--

오름 트레킹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서 얻은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적인 자료처리에만 이용됩니다.

질문 내용에는 옳고·그른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응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과정 부공민
지도교수 류재청

H.P : 011-690-3040

홈페이지 : <http://orum.pe.kr>

E-mail : loveisboo@hanmail.net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I. 먼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 표하거나 ()안에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 성 별 1) 남 2) 여
2. 연 령 (세)
3. 결혼유무 1) 미혼 2) 기혼
4. 귀하께서는 오름 트레킹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예 : 2년 6개월
5. 귀하께서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예 : 일주일에 2회
6. 귀하께서는 오름 트레킹에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1) 오름 동호회에서 2) 가족과 함께 3) 친구 또는 직장에서 4) 혼자서

II. 다음 문항들은 사람들이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귀하는 현재 왜 오름 트레킹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를 알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3.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서	①	②	③	④	⑤
4. 주위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①	②	③	④	⑤
5. 오름과 자연이 좋아서	①	②	③	④	⑤
6.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①	②	③	④	⑤
7. 가까이 있어 큰 준비나 비용 없이도 갈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8. 곱고 아름다운 오름 능선을 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9. 동호회에 가입 활동하면서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증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1. 신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보를 듣고서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 생태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3.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①	②	③	④	⑤
14. 체중조절(다이어트)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5.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①	②	③	④	⑤
16. 오름을 정복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7. 신선한 공기의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8.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9. 체력단련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20.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21. 제주 오름의 신비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2. 사진촬영 등 취미생활로	①	②	③	④	⑤
23. 여기를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24.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5. 건강 체크 및 관리차원에서	①	②	③	④	⑤
26. 오름에 대해 알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7. 운동을 목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8. 모임의 친목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들은 귀하께서 오름 트레킹에 참여 후 만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나는 오름 트레킹을 하면서()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마음이 편안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연과 친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심폐기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간 화합의 기회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오름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오름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1. 인내심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2.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제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건강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5.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체력이 단련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상쾌함과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연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5. 오름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6. 몸이 가벼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라는 물음에 오름과 관련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었는데 그만큼 오름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름에 대한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나를 수도 없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를 우여곡절을 거쳐 4년이나 걸려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두 분의 지도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나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잘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신 류재청 교수님 그 근면 성실한 모습과 학문에 대한 열정 제 마음속 깊이 담고 되새기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많이 부족한 저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무서운 채찍질로 이끌어주시며 학문뿐만 아니라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신 양명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두 분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앞으로 매사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논문 심사에 수고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임상용 교수님, 이세형 교수님, 김성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성찬 교수님, 오만원 교수님, 이창준 교수님, 남사용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챙겨주신 김덕진 선배님, 박병훈 선생님, 김진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동안 서로 힘이 되어주었던 동기원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에 도움주신 '오름나라', '오르메', '오름애', '한사모', '제주오름사랑', '제주야생화'를 비롯한 여러 오름 동호회와 제가 활동하는 '오름사랑'의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처음 오름을 바라보는 법을 일깨워주신 양영태 선생님, 오름과 사람들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용기를 주었던 아버지 같은 오대영님(이상해 꽃), 오름에서 만난친구 양세진님(사람), 문성희님(cool), 강정아님(말뚱), 김희선님(아카사), 고은경님(반고흐), 홍광일님(벼락), 김기현님, 임창만님(마니), 김창룡님(교룡), 장재훈님(가람) 배려와 열정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이덕근님(dk), 고성원님(문섬), 김영규님(영), 문경돈님(그루터기), 고평렬님(팽이) 등 오름을 알면서 알게 된 오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체육관 아이들 사범님이 오름 가자고 해서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따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 학부모님 배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스님, 작은누나, 이뿐의정, 멋진희중 마지막으로 어머니 강문자님 아들이 늦은 공부한다고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활로 바쁘다며 많이 배려해주신 태권도가족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의 청춘시절~!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해준 소박하게 아름다운 오름과 그 오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오름사랑[<http://cafe.daum.net/orumlove>]에 이 논문을 받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사랑하는 오름이 우리 후대 대대로 아름답고 소박하게 자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답고 정 넘치는 제주만의 향을 잊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6월
부공민
탐라의 원주민

[미 주]

1) trek n. (a) a long hard journey, esp on foot.

(b) a long hard walk lasting several days or weeks, esp in mountains.

trek v. to make a tre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 제주에서 ‘오름’이라 불리는 단성화산의 수는 357개(박승필, 1986) 또는 368개(제주도, 1997) 등으로 화산체 판정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1997)에서 보고하고 있는 368개를 원칙으로 한다.

3) 따라비 : 표선면 가시리에 소재한 비고 107m의 오름으로 그 오름 선이 아름다워 손꼽히는 오름 중 하나이다(제주도, 1997).

4) 굽부리 : 분화구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산 정상에 있는 움푹하게 팬 곳을 뜻하는 고유어이다(오창명, 1998).

5)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크게 3개 자연유산으로 이뤄졌다. 이들 세계자연유산 지구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1%인 187.2km²와 공유수면 1.2km² 등 모두 188.4km²나 된다(이재홍, 2007).

6)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지정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강시영, 2007).

7) 기생화산(寄生火山)이라고 많이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측화산(側火山)이라고 바뀌어서 불리고 있다. 분화활동 횟수에 따라 화산체를 단성화산과 복성화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성화산 주변에 형성된 단성화산군을 측화산이라고 한다(김태호, 2001).

8) 이문원은 1994년 ‘제주도 형성사와 지질구조’에서 제주도 형성과정을 제1분출기(94~120만년전 : 제주도 형성), 제2분출기(60만년전 : 해안선형성), 제3분출기(27만년전 : 한라산분출), 제4분출기(5만년전 : 활발한 오름 형성)의 4단계로 구분하여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문원의 주장에 따른 제주도 형성과정을 인용하도록 한다.

9) 새별오름 : 애월읍 봉성리에 소재한 비고 119m의 오름으로 근래 들불축제 현장으로 활용되면서 유명해진 오름이다(제주도, 1997).

10) 바리메 : 애월읍 어음리에 소재한 213m의 오름으로 산정분화구가 아름다운 오름이다(제주도, 1997).

11) 노꼬메 :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의 오름으로 비고가 234m이며 최근 애월읍에서 등산로를 개설하여 탐방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제주도, 1997).

12) 다랑쉬 : 구좌읍 세화리에 소재한 비고 227m의 오름으로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며 근래 등산로가 개설되어 생태관광객 등 탐방객이 가장 많은 오름이다(제주도, 1997).